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제316호 2025년 1월 19일(다해) 연중 제2주일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한 15,1)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어제와 오늘>: 쌍호분회

제1독서 이사야서 62,1-5

화답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코린토 1서 12,4-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1-11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홍보·전산
오픈카톡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잔치로

옥산 본당 주임
남정홍 스테파노 신부



옥산성당의 올 한해 인사 방법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성모님과 제자들과 함께 잔칫집에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맛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며 덕담과 담소를 나눕니다. 혼인 잔치로 인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잔칫집의 흥과 기쁨으로 행복이 고조 될 때쯤 잔칫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잔칫집의 생명 줄과 같은 술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과방장과 주인은 당황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잔치 손님들은 수군대며 어수선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더욱 당황해하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성모님은 예수님을 보시며 “포도주가 없구나”말하고, 예수님은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3~5) 하셨다. 그러자 물독 여섯 개를 본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요한 2,7~8) 하셨다 그 포도주는 앞에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술이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로 인해 혼인 잔치는 더욱더 흥이 살아나고 잔치는 대화와 친교로 기쁨과 행복의 잔칫집으로 변화되었다.

오늘 성모님과 예수님, 일꾼 각자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죽어가던 잔치가 다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친교의 장으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공동체의 모습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잔칫집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에 부닥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와 신앙공동체도 일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활력을 잃어 갈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귀도 예수님을 향해 열어 놓고, 우리의 손과 발은 예수님이 시키는 물동이를 나르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와 나의 가정 공동체, 나와 함께 하고있는 모든 공동체와 특히 신앙공동체가 활력을 잃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작은 것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물동이에 물 한 바가지 붓는 심정으로, 주님께로 받은 은사와 은총을 생각하여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내주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쌍호분회

표지 사진 설명



공소 설립 140~150여 년이 된 쌍호 공소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유서 깊은 신앙공동체입니다. 이 공소의 쌍호 분회는 1970~80년대 농민운동의 산증인이자, 모범 공동체(현재까지 540차 월례회, 부부 동반, 생활 나눔의 장)로 가톨릭농민회의 전통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며, 함께 정리하는 생명공동체-생활 공동체 운동의 모범(생명 농업 30여 년의 역사, 다양한 방식의 협동 경험을 한 공동체)을 보여주는 쌍호 분회는 특히 생명 농업 실천(회원들이 버려진 버드나무를 파쇄하여 퇴비를 직접 만들어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농사 방법)으로 제14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분회원 : 우영식 가브리엘·최아녀 아네스, 진상국 시리노·반향숙 펠릭스, 최재호 마르티노·우춘분 베로니카, 김정상 마르티노·조옥희 베네딕타, 허춘학 프란치스코·권옥이 프란치스카, 어정숙 베로니카(6가구, 11명)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반오소서 7년 여정-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분회)-판매(우리농 매장)-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목상글을 담습니다.

고라니를 위한 변명

우동걸 박사님

야생동물 생태를 연구한다.

《숲에서 태어나 길위에 서다(2021)》를 썼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갈게 씻은 고운 해가 떠오릅니다. 여기에 음향효과가 더해집니다. “으아우 으아우” 혹은 “으웨엑 으웨엑” 인간의 의성어로 차마 따라 하기 어려운, 다소 기이한 소리가 산과 들에서 들려옵니다. 새해 아침을 여는 고라니 울음입니다.



고라니는 분류학상 사슴과에 속하지만 사슴의 상징인 뿔이 없습니다. 대신 수컷 고라니는 송곳니가 돌출해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에선 ‘뱀파이어 사슴’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식동물이라 흡혈하진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고라니는 흔하디 흔해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며 분포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중국 고라니 개체군 크기는 1만여 마리에 불과해 보호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체수가 약 70만 마리에 이릅니다. 전 세계 고라니 대다수가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본향이 한반도이기에 해외 동물학자들은 우리네 생물 중 고라니를 가장 주목합니다. 어쩌면 한반도를 대표하는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면 고라니를 마스코트로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도 생각해 두었습니다. 바로 코리아니(Koreani)!

하지만 고라니는 미움을 받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농사짓는 입장에선 고라니 땀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알뜰게도 농작물 여기저기 맛있는 부위들만 뜯어 먹어 상품성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로 인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해마다 20여만 마리가 총기로 사살됩니다.

전적으로 고라니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 씁쓸한 현실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라니는 농민의 피와 땀방울, 상품성과 자본의 속성을 당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가꾸어진 밭은 고라니에게는 그저 매력적인 채식밭에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도시화와 개발로 서식지가 불안정해진 고라니에게

농작물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고라니에 의한 피해와 개체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상위포식자의 부재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호랑이, 표범, 늑대를 비롯한 대형 육식동물을 몰아낸 건 우리 사람입니다. 지금 겪는 환경문제가 대부분 자업자득이듯 고라니 문제도 그러합니다. 우리 원죄는 까맣게 잊고 그저 고라니를 탓하고 증오하기만 한 건 아닌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니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라니는 대표적인 로드킬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전국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고라니는 6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고라니가 좋아하는 서식지는 습지, 농경지, 하천변 등 저지대 일대입니다. 이런 평야 지역은 사람도 많이 살고, 도로밀도도 높기에 고라니는 로드킬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사실 고라니는 호모사피엔스보다 앞서 약 160만년 전 한반도에 도래했습니다. 고라니 입장에선 인간이 침입생물이자 유해 동물일 수 있습니다. 쫓든 싫든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왔고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공동체로 고라니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체군 관리방안, 실효성 있는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설치 및 피해보상 확대지원 등 공존 방안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K-사슴, 고라니에게 2025년은 조금은 덜 잔인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으아우 으아우” 불안에 밤잠을 설치며 고라니처럼 사자후를 외쳐봅니다. 인권, 자연,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존재들, 이 땅의 험한 것들이 평화되길 기원합니다.



세례자 요한 3

함신부가 들려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요한이 태어날 때, 엘리사벳은 불임의 몸인 데다,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루카 1,7). 이렇게 성경은 요한의 탄생이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즈카르야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대가로 병어리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루카 1,20).

참고로 여기서 나이가 많다는 표현은 90세에

이사악을 낳은 사라처럼 엘리사벳이 초고령 출산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엘리사벳의 나이는 30~40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당시 여인들이 대부분 아이를 10대에 출산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 저 나이에 초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성체분배권 수여 교육

1월 9일(목)에 교구청에서 <성체분배권 수여 교육>이 있었습니다. 24명(김홍락 베드로, 박세현 요셉, 김연호 요셉, 윤상철 요셉, 장명화 레지나, 박찬우 미카엘, 권동설 스테파노, 김옥련 호임골롬바, 전형석 다니엘, 김강중 요한, 박동성 요셉, 이대희 베드로, 전운태 요셉, 윤영호 라파엘, 이현경 프란치스카, 김배다 베다, 김성희 사도요한, 서인태 다니엘, 이계숙 마리아젤라, 김금자 마그리뜨, 조순년 비비안나, 우운희 스텔라, 이명숙 켈마, 김은숙 아브라함)이 수료증을 받으셨습니다.



남성 제47차 꾸르실료

1월 10일(금)에 농은 수련원에서 <남성 제47차 꾸르실료>가 있었습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등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치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꺽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셀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한국금거래소 상주점

골드바, 실버바 / 선물용 / 순금기념품
민을수있는순도, 최고가 고금매입
신속조 요안나
상주시 상산로 277
T.054-536-5000



교구장 동정



1월 19일 청소년 견진 캠프
1월 21일 참사회의
1월 22일 학교법인 이사회
1월 25일 사목임원·제단체장 연수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1월 26일 박지훈 디모테오 신부

축하합니다

서품축일

1월 21일 박윤정 바오로, 남정홍 스테파노
김학록 안셀모, 박철현 가브리엘
백동수 토마스 아퀴나스
우석민 로만 신부
송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1월 22일 손대혁 루치오 신부
1월 23일 김상진 아오스딩
정 일 가브리엘 신부
1월 24일 김지성 안토니오, 박지훈 디모테오
이승준 도미니코
박석일 베드로 신부
1월 25일 김유강 시몬
박효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1월 26일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정상업 바오로 신부

교 구

사목임원·교구 제 단체장 연수

일 시: 1. 24(금) 17:30~ 25(토) 점심식사까지
장 소: 농은수련원
참가비: 1인 40,000원
대 상: 평협 상임임원, 본당 사목임원,
교구 내 제 단체 임원

2025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대 상: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등록 기간: 2. 12(수)까지
등록금: 1인 50,000원(1년)
문 의: 사목국 성소담당(054-858-3115)

2025년 초등부 복사단 연수

일 시: 2. 15(토) 14:00~ 16(주일) 16:00
장 소: 농은수련원
대 상: 첫영성체를 한 후 복사단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
(2024학년 기준으로 6학년까지의
남,녀 어린이)

2025년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

일 자: 1. 21(화)~ 22(수)
장 소: 개운동 본당 및 상주 가르멜 수녀원

제 단 체

테마가 있는 성경 강좌

일 시: 1. 24(금) 19:30
장 소: 갈전 마티아 본당
준비물: 성경, 필기구, 참가비 5000

생태환경위원회 '생태특강'

일 시: 2. 8(토) 10:00~ 12:00
장 소: 안동 교구청
대 상: 60명(각 본당 생태환경 부장, 차장)
강 사: 김대건 베드로 신부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
주 제: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과 생태적 삶'
신청 기간: 1. 12(주일)~ 1. 26(주일)
문 의: 김경태 다두 010-6510-15522025

수 도 회 · 피 정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 시: 2. 7(금)~ 9(주일)
장 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 상: 건강한 고1~ 35세 미만 남성
접수 마감: 1. 31(금)
문 의: 010-6221-3520

성모슬숲(청도)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기 간: 매월 둘째주 금~ 일요일 (2박 3일)
일 자: 2. 7(금)~ 9(주일)
3. 7(금)~ 9(주일)
4. 11(금)~ 13(주일)
5. 9(금)~ 11(주일)
문 의: 010-3209-3955 [문자접수]

상주가르멜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교 육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대 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 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11. 11(월)~ 2. 14(금)
문 의: 02-745-8339, ci.catholic.ac.kr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시자율모집: 1. 15(수)~ 2. 28(금)
주간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바이오제약과, 글로벌뷰티케어과
주말반학과: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야간학과: 경영과, 사회복지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치매 심리정서 전문가 무료 교육

일 정: 2. 15(토), 22(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중식 제공)
내 용: 치매의 이해, 증상, 평가 및 예방,
치매환자 케어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식품가공 개발과정 무료 교육

일 정: 2. 15(토), 22(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중식 제공)
내 용: 식품 트렌드 분석, 간편가정식
(HMR)제품에 대한 이해 및 실습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산후관리사 취업연계

일 정: 3. 4(화)~ 4. 4(금) (총 23일 138시간)
시 간: 09:30~ 16:00 (월~금)/ 중식제공
대 상: 미취업자(취업가능자)
혜 택: 무료교육, 훈련수당 20만, 취업연계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8

기 타

안동신협 제52차 정기총회 안내

일 시: 2. 1(토) 14:00
장 소: 안동사청 대동관 낙동홀
문 의: 054-859-1710

천주교 안동교구 봉안경당

설날 연미사 안내

일 시: 1. 29(수) 11:00/ 15:00
장 소: 봉안경당
신 청: 당일 사무실 혹은 계좌입금
(농협 737-02-167722.
예금주 김도겸)
* 계좌입금은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문 의: 054-655-1781